

사회

초등학생 10명 중 4명

“방학 때 2학기 선행학습”

‘에듀모아’ 광주 등 전국 6715명 조사

초등학생 10명 중 4명은 여름방학 동안 ‘2학기 선행학습’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온라인 교육 사이트 에듀모아(www.edumoa.com)가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광주 등 전국의 초등학생 6715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공부 계획’을 설문 조사한 결과, 44.2%(2969명)가 ‘2학기 선행학습’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1학기 내용 복습’(24.7%), ‘영어·수학 공부’(17.

0%) 등의 순이었다.

‘방학동안 하루 평균 학습시간’에 대해서는 ‘1~2시간’이 35.1%로 가장 많았고, ‘1시간 이하’(23.8%), ‘2~3시간’(19%), ‘4시간 이상’(13.8%)순으로 답했다.

또 ‘가장 가고 싶은 여름캠프’로는 ‘자연 체험 캠프’(25.6%)가 가장 높았고, ‘영어캠프’(19.4%), ‘과학 캠프’(14.4%), ‘농촌 체험 캠프’(10.4%) 등이 뒤를 이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짚풀공예 체험학습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22일 광주시 북구 건국동주민센터 짚풀공예체험학습장에서 새끼꼬기 등 전통 공예체험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문계고가 좋아요”

을 광주 인문계고 학생 42명 전학

올해 광주 지역에서 중학교 졸업 후 일반계 고교에 진학했다가 전문계 고교로 진로를 바꾼 학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관내 43개 일반계 고교에서 전문계 고교로 옮긴 학생은 다른 시도 학생 4명을 포함, 모두 42명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전문계고로 옮긴 학생이 연 평균 10여명 안팎

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학교별로는 송원여상에 14명이 옮겨와 가장 많았으며 금파공고 10명, 전산고 6명, 동일전자정보고 3명 등 11곳에 42명이다.

반면 전문계고에서 일반계고로 전학을 간 학생은 단 한 명도 없다. 단일학군인 광주에서는 동일 계열 전학은 불가능하지만 계열이 다르면 전·입학이 가능하

다.

전문계고로 전환한 학생이 증가한 이유는 전문계고 졸업생 취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전문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올해에도 학기초부터 대기업에서 전문계고 졸업 예정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치열한 인재 유치전이 전개되기도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졸업 후 곧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장점 등으로 전문계고로 옮긴 가장 큰 이유중 하나로 보인다”며 “전학은 2학년 1학기 때까지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지역 전문계 고교는 13곳으로 재학생은 1만 5000여명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항명파동’ 채수창 전 강북서장 파면

경찰청 중앙징계위

경찰의 지나친 성과주의를 비판하는 ‘항명파동’을 일으킨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이 22일 파면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청사에서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채 전 서장을 파면하기로 의결했으며, 이 결정이 곧바로 징계관이인 강희탁 경찰청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됐다.

중앙징계위는 “채 전 서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파면 이유를 밝혔다. 파면은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게 내려지는 최고 수위

의 징계로 퇴직 일시금이나 연금을 절반밖에 받을 수 없고 항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채 전 서장은 중앙징계위 직후 “파면을 당할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징계에 승복할 수 없고 소청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대 1기생인 채 전 서장은 지난 달 28일 강북서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경찰청의 성과주의가 지나친 범인 검거 실적 경쟁으로 변질돼 양천서 고문의혹 사건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해외여행 가기 전에

현지 질병정보 확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 관광지에서 각종 전염병에 감염돼 돌아오는 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보건당국은 해외 여행객들에게 현지에서 유행하는 질병

정보를 먼저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여름 휴가철에 세계 각국을 방문하는 해외여행객에게 반드시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travelinfo.cdc.go.kr)를 검색, 목적지에서 유행하고 있거나 주의해야 할 질병정보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대서’ 폭염·열대야

광주·전남 최고 33도…주말엔 비

연중 가장 더운 시기로 꼽히는 대서(大暑)인 23일은 폭염주의보 발효 지역이 확대되는 등 무더위가 한층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주말에 비가 내린 뒤에 이번 무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지역은 23일 낮 최고기온이 30도에서 33도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다.

이와 함께 함평·나주·장성·부안 등 4개 지역은 22일 발효된 폭염주의보가 23일에도 이어질 전망이며, 이

날 폭염주의보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열대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노약자나 어린이 등의 각별한 건강 관리가 요망된다.

하지만 주말인 24일에는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전반적으로 2~3도 가량 온도가 떨어져 땅볕 더위는 잠시나마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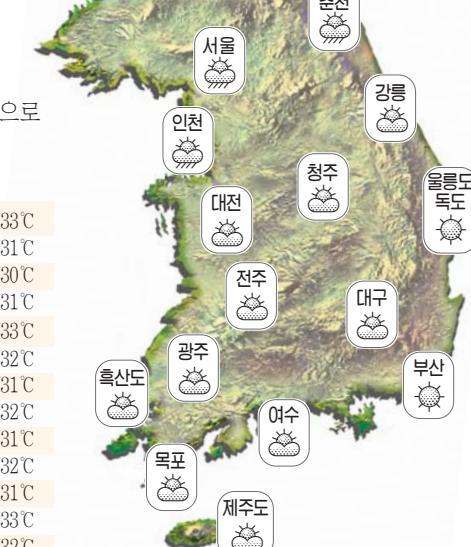
오늘 날씨

해음 05시 34분 해집 19시 34분 달음 17시 44분 달집 02시 39분

이글대는 태양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 구름이 많겠다.

광주	구름많음	25/33°C
목포	구름많음	25/31°C
여수	구름많음	25/30°C
완도	구름많음	25/31°C
구례	구름많음	24/33°C
여남	구름많음	25/32°C
장흥	구름많음	25/31°C
고흥	구름많음	24/32°C
순천	구름많음	24/31°C
영광	구름많음	25/32°C
진도	구름많음	25/31°C
전주	구름많음	25/33°C
남원	구름많음	25/32°C
흑산도	구름많음	23/27°C



〈오전〉	비다	풍향	파고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민비다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남동~남	1.0~1.5m
	민비다				매우높음	경고
					매우높음	매우높음

〈오후〉	비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목포	00:13 05:51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여수	12:08 17:35
	민비다			남~남서	07:09 20:08	
				남동~남	01:31 13:14	

◇주간날씨

날짜	날씨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29(목)
최저/최고	25/31	25/30	25/30	25/30	24/30	24/30	25/30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비수술적 성형, 히말루론산 시술



김영길 성형외과의원

☎ 02-227-3777

무통극장 암